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개최일시	2019. 4. 25. (목) 15:00~17:5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204호
참석자 (13명)	강동범(교무처장), 강미리(동아리연합회 회장), 김다연(대학원 학생회장), 김선우(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김세빈(사범대학 공동대표), 백옥경(학생처장), 유세경(기획처장), 이민하(학부 총학생회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이준엽(관리처장), 최혜련(예산팀장), 한은서(학부 부총학생회장), 홍기석(총무처장)		
불참자 (0명)			
안건	2018학년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내용	<p>■ 개회</p> <p>기획처장이 지난 1차 회의 때 교무처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음을 언급하며, 보직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위원장을 소개하다. 위원장이 보직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제안하여 각 위원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다. 위원장이 예정된 4차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관리처장을 4차 회의의 임시위원장으로 함에 양해를 구하고, 예산팀장이 회의록 작성 일정에 대해 안내하다.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과반수 참석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회하다.</p> <p>■ 회의내용</p> <p>1. 논의사항</p> <p>가. 학부 학생위원 요청사항 관련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18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이 오늘의 안건임을 말하며, 기획처장에게 교비회계 결산(안) 설명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전에 받은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를 요청하며, 실험실습비 공개 관련하여 교무회의 보고가 늦어진 이유를 질문하다. - 관리처장이 4월 교무회의 때 보고하였다고 말하며 2월엔 교무회의가 		

없었음을 답하다.

- 기획처장이 교무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2월엔 방학인 관계로 교무회의가 없었고, 3월엔 전임 교무처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해당안건 상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임 교무처장이 임명된 4월에 보고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논의는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이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논의가 언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안건에 대한 교무위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조형예술대학의 경우엔 작년에 단과대학 대표에게 공개한 적이 있다고 말하다. 교무위원들도 해당 안건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각 단과대학마다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의 비율이 달라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다음 교무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고,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여 알려주겠다고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조형예술대학의 사례처럼 학생 대표자만 열람하게 된다면 제대로 공개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방식을 논의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타 대학의 경우에도 실험실습비는 공개하는 추세임을 말하며, 숙명여대의 경우 실험실습비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학과별로 공개를 제대로 안하면 페널티를 주는 등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니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과별이나 단과대학별로 공개 관련 질문을 하면 다른 곳에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이 돌아오는데, 그러지 않도록 중앙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구체적인 예시를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중앙차원에서는 단과대학에 질의하라고 하고, 단과대학에서는 학과 차원의 질문이라고 하며, 기준과 공개방식이 달라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중앙 차원의 관리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 관리처장이 실험실습비의 경우 각 단과대학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중앙에서 단과대학별 자율성을 인정해주어 단과대학별로 공개하는 방식과 범위가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다. 학부 학생위원들이 요청한대로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개 방식에 대해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하다. 단시간에 모든 단과대학이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공개를 표준화하도록 논의 중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한 번에 바뀌면 좋겠지만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논의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5월 교무회의의 논의 결과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면 답변을 약속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총학생회는 학생처를 통해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있음을 말하고,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주시기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먼저 답변을 줄 수 없냐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논의된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으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전달하겠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지난 회의 때 경비인력 확충을 요구하였으나 총무처장은 인력을 확충할 생각은 없고 카드리더기 설치와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답하였는데, 포스코관의 외부인 난입사건 이후에도 경비인력 확충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그 외부인은 정신문제가 있는 일본인 관광객이라고 들었는데, 그러한 사건은 구조적, 체계적인 문제라고 보기엔 예외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한다. 현재 포스코관에 기존 경비인력이 있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확충정도를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헬렌관엔 경비실이 없고, 경비인력이 없다고 들었다고 하다.
- 기획처장이 헬렌관은 규모도 작고 본관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본관과 헬렌관 사이에 경비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해당 경비가 거의 헬렌관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헬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경비실이 없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나면 일찍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사용이 어렵다고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처장이 경비가 없다는 것 보다는 건물 사용시간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원래 야간에 출입하는 경우엔 총무처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다. - 총무처장이 몇시에 잠겼다고 했는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별다른 일이 없는 경우 정규수업이 끝난 6시 이후에 닫는다고 답하며, 출입시간의 제한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도 있는데 모든 건물에 경비인력 배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인건비 때문인지를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인건비 문제도 있어 경비인력을 최적으로 배치해야하는데, 헬렌관의 경우 본관과 가까워서 위험하거나 출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으나 출입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개별 사안에 대해 등심위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은 추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위원장이 해당 사안과 같이 단과대학의 관리문제는 해당 단과대학 건물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행정실이나 부학장, 학장에게 개선 요청을 하는 것이 등심위에서 논의하여 해결되는 것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하다. - 총무처장이 학부 학생위원들이 포스코관과 헬렌관은 예시이고, 전반적인 경비인력 문제를 지적한 것 같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포스코관 사건이 예외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예외적이라고 말한 이유를 질문하다. - 총무처장이 물론 해당 사건이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학교 경비는 다른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교사면적기준 경비 1인당 담당면적이 훨씬 작으며, CCTV도 훨씬 많은 곳에 설치되어있다고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포스코관 사건을 예외적인 일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다. 해당 사건은 외부인이 출입했을 때 아무런 저지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이며, 한 건의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다. 학생들이 경비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타 학교 보다 경비 인력이 많다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발언이라고 말하다. - 위원장이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 우리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 경비 1인당 담당면적이 작긴 하지만 여학생이 많기
--	--

때문에 관리처 및 총무처에서 전체적으로 학교 경비의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위험하다는 판단이 되면 경비를 확충하거나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전국 대학교 최초로 외부 전문 용역을 통해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보안 및 안전이 취약한 곳을 점검하였다고 말한다. 점진적으로 그 결과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하고 있으며, 경비인력 외에도 취약점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개선하고 있음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경비 1인당 담당면적이 타학교에 비해 작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학교가 타학교에 비해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한다. 관광객 쿠퍼제도 고려하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이 난입했다고 하였는데, 진로내역을 보지도 않고 외향과 행동거지만 보고 판단한 것 같아 부당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말한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좀 더 보안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외부인의 강의실 출입은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이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하자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재정지원사업 종료로 인해 학생경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 전 학생처장이 추가 사업 선정 시 우선적으로 확충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후 학생경비 확충이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재정지원사업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원기관과 예산 협의 중임을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학생들이 타 대학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만, 우리학교는 전체 예산 대비 학생경비 수준이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이번 재정지원사업 역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정하였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기획처장이 말하는 학생경비는 연구학생경비 관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학생들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연구학생경비는 재정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예산 편성 시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는 지난 중앙운영위원회 공문 답변을 보면 검토 중인 사안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해당 사안 중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을 정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답변한 항목들은 진행 중이거나 회계연도 안에 진행예정인 항목을 정리한 것임을 말한다.

- 관리처장이 예산 원칙은 당초에 편성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학년도 중 사업변동은 지양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요청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고 답하다. 특히 건축 안전 분야는 해마다 단과대학별로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요청한 단과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등심위가 계수조정위원회처럼 개별 단과대학의 예산 숫자를 조정하는 곳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단과대학과 공유하고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산편성시점에 학생들의 의견을 주면 취합해서 반영해보고, 당해연도 안에 해결 가능한 것은 해보겠다고 하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학생들과 공유해줄 수 있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내용을 단과대학과 협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좋겠다고 하다.

- 위원장이 중앙운영위원회 공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강사법에 대해 5월에 세부지침이 나오면 법안을 따르겠다고 하였는데, 방중임금이 예산에 편성되었다면 다른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 인지를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강사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법을 충실히 따를 것이며,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강의를 최대한 들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다.

- 기획처장이 강사법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같은 것은 학교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강사법으로 인해 작위적으로 있는 과목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강사임용에 있어서 강사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교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강사 휴게 공간 개보수 비용 등의 예산은 편성해 두었다고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난번에도 학교에선 대규모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하였고, 교무처에 강사법 관련한 학생들의 우려점에 대해 공문을 보냈었는데 회신이 없었다고 말한다.

- 교무처장이 현재 강사법에서는 강사 1인당 6학점의 수업을 보장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3학점씩 2명이 가르치던 수업을 강사법 이후엔 1명이 6학점을 가르치게 된다고 하다. 이처럼 실제로 과목수가 줄어들지 않아도 강사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기에 공식적으로 강사를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다.

- 학부 총부학생회장이 강사법으로 인해 6학점 수업에 대해 강사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 분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강사수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은지 질의하다. 수강신청 관련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았고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하다.

- 교무처장이 분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강사법과 관계없이 분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다. 강사법과 분반의 필요성은 결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는 분반해서 수강신청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학교가 의도적으로 막진 않을 것이라고 답하다.

- 위원장이 본 안건 심의를 진행해도 되겠냐고 질의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아직 질문이 있다고 하다.

- 위원장이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본 안건 논의를 못했기 때문에 짧게 질문하길 요청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법인책무성강화 관련하여 올해는 법인전입금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이 지속적으로 학생위원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하다. 법인과 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려움을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법인의 반응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법인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법인에 법인책무성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회의록 공유 정도라면 이를 법인책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하다. 등심위 학교위원들이 법인 대변인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법인 책무성 강화에 대한 학교의 노력을 질의한 것인데, 노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다.

- 위원장이 법인이 수익사업이 많지 않은 것을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법인에 전입금 증액 요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교도 그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총장이나 보직교수가 이사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법인에 전입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정도의 요구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수영장 관련 설명회를 앞두고 있어 질의한다며, 관리처에서 스포츠 센터를 짓고자 하는데 해당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작년에 그런 안이 있었으나 현재 검토중이고,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그 안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다. 현실적이고 추진 가능한 대안이면 추경에 반영하여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으나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 학부 총부학생회장이 스포츠센터를 짓는 것이 아닌 수영장을 유지한다는 의견이 모인다면 점검하고 수리하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스포츠 센터는 투자개념이지만, 계속 낙후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기엔 학교의 재정이 어렵다고 말한다. 설명회는 전체 구성원의 의견이 어떤지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덧붙인다.

- 학부 총부학생회장이 대동제가 늘 예산이 부족하고 적자가 나서 교비지원을 늘려달라고 학생처를 방문했을 때 예산팀과 상의한다고 하였는데 지원금을 늘려줄 생각이 있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지금 주어진 한도 내에서 증액은 어려운 점이 많다는 사실을 학생들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지원팀을 통해 부스를 늘리는 방안과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다.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대동제 지원비용을 늘리기엔 다른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제한적 증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하다. 내년의 대동제가 부스중심이 아니라 새롭게 축제 내용의 다각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에 따라 예산팀과 의논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학교 측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근거로 엘텍공과대학 연구협력관과 의과대학 신축을 제시했는데, 연

구협력관의 강의실 2개 확충이 수업 공간 문제의 충분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다. 엘텍공과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학도 수업 공간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계획에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학생들의 공간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엘텍공과대학 새 건물에 학생공간이 없다는 것도 전달 받았다고 말한다. 개별 호실은 아니어도 중앙의 큰 공간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점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강의환경이 바뀌고 있고 분반의 제한 조건도 공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학관이 노후 되어 리모델링 증축을 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신축공간은 가급적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 교무처장이 교무처에서도 공간 부분은 협조 요청 한다고 덧붙인다.

- 위원장이 학부 학생위원들이 보직자들과 희망사항 및 애로사항을 말하고 싶은 것은 이해하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대학원 학생회장은 대학원에 대해 질문할 것이 있는지 질의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 논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다. 일전에 학교에 진행 경과를 질의했었는데 양측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며, 논란이 있는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경우 교내에서도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위원들도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어 자세한 내용의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말한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기사에도 나온 건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언론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개한다고 해도 교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독립적으로 해당 연구가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5월 초중순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논의되지 않을지 추측한다고 덧붙인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조사가 충분히 되면 그 자리에서 표절여부가 판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표절여부만 판정하고 후속 징계 여부의

경우엔 별도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인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마지막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예·결산 및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은 다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관리처장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학생처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처장단도 학생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자리에 처장단도 참석하는 것에 대해 제안한다.

- 학생처장이 협의체는 실무자와 학생대표의 만남인데 학생들은 처장들도 참석하길 바라는 것 같으며, 재학생들의 대부분의 요구는 실무진이 가장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과 협의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차 협의회는 시간이 촉박하니 학생처에서 일정 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으며, 2차 협의회 땀 처장도 참석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등심위에 모든 처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학생위원들은 실무진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처장들이 참석했다고 해서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처장과 실무진이 긴밀하게 협조한다면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검토하며 진행하는 것이 더 순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전에 진행했던 협의체에서 부처 내부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처장이 참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으나 참석 못하더라도 내부 소통이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실무진과 잘 소통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처장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촉해서 유감이나 본 안건을 심의해야하기 때문에 본 안건으로 넘어가겠다고 말한다. 첫 번째 안건인 교비회계의 결산(안) 설명을 요청하다.

나. 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의결

- 기획처장이 '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각 수입, 지출 항목에 대해 '18학년도 추경예산 대비 증감요인을 덧붙이며 설명하다.

- 학부 총부학생회장이 Innovation Ewha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Innovation Ewha기금은 학교의 발전 및 전략사업에 사

용되는 학교사업 기금으로 미래역량육성사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교원지원 145억 원이 마곡병원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본교 의과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지원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특정목적기금 중 145억 원이 우수교원 지원이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질의하자 예산팀장이 평의원회에서도 의대 교원 지원이라고 말했다고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의과대학 교원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의료원에서 나가야하는 비용이 아닌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본교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인건비이므로 교비에서 집행되는 것임을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의과대학 교원이 의예과만 해당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의예과 및 의학과와 전임교수 즉, 의과대학 소속 교원 모두가 해당된다고 답하다.
- 기획처장이 교원의 인건비는 학교가 지급하는 것임을 말하고, 의료원은 의료수익이 좋아지면 학교로의 전출을 통해 교육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추경예산 대비 기금인출이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추경예산 대비 사업비 지출 감소 및 원금보존기금 인출 감소에 따른 기금간 이관 감소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대 인건비 관련해서 임상교원 인건비는 부속병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하다.
- 예산팀장이 사립학교법 몇 조 몇 항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에 임상교원 인건비는 부속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있다고 답하다.

- 예산팀장이 확인하겠으며, 학교 소속 교원의 급여는 학교가 지급하는 것임을 말한다.

- 외부위원이 기부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와 연구학생경비의 구성내역, 원금보존기금을 인출하였는데 이를 추후 충당하는 방법이나 정책이 있는지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원금보존기금 인출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임의기금이 모두 소진되었기에, 사업 수행을 위해 원금 보존 기금을 인출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수입과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안정화 도모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한다. 연구학생경비의 구성내역을 설명하고, 사업이 지연 된 부분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기부금의 경우엔 학내 사태의 여파도 있었고, 김영란법 이후에 모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에는 소액기부 활성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모금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추가 질문사항이 있는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자료 관련하여 계정별 집행 자료는 평의원회에서 받지 못했던 거라고 말한다.

- 예산팀장이 해당 자료는 지난 등심위 때 학생위원들이 요청하여 넣은 자료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평의원회에서도 해당 자료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며, 예산팀장이 알겠다고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토지 및 건축비 항목에서 연구협력관과 토지매입이 추경 대비 증감한 원인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연구협력관의 공정 진행이 빨라졌으며, 토지매입의 경우 매각자의 토지대장 정리가 되지 않아 매입절차가 지연되었음을 답하다. 토지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절차가 진행예정임을 답하다.

- 관리처장이 건축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확정 후 공사기간 중에는 건설가계정을 사용하여 집행하고 있고, 공기진행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대비 집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이화 오뚜기 어린이집도 공기가 지연된 것인지 질의하고, 관리처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교내 장학금의 감소분은 대학원 장학금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그렇다고 답하고 학생처장이 학부 장학금은 변동이 없다고 덧붙인다.

- 위원장이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18학년도 교비 결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와는 다르게 학부 학생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심의를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앞으로 진행될 협의체와 운영 등심위에서 이를 잘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협의체에 처장단이 들어오는 것을 다시 고려해 달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의결을 통해 찬성, 반대, 기권 등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위원장이 결산(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결산(안) 의결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결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학교 위원의 말에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인지 질의하다. 학부 학생위원은 결산 자체가 아닌 등심위의 의결과정 자체를 승낙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학부 학생위원 전원이 퇴장해도 의결이 가능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학부 학생위원들의 의견은 이해하나 결산(안)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그것은 운영구조를 논의하는 차기 등심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운영구조에 반영이 된다면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며, 현재로서는 의결을 거부하는 것이 학생들의 의사라고 말한다.

- 학부 학생위원 5인이 전원 퇴장하다.

- 위원장이 학부 학생위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의결을 진행하다.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학생처장, 대학원 학생회장, 외부위원 총 8인이 찬성하여 '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다. 2018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 부속병원의 전략기획본부장, 서울병원 관리팀장(이하 '서울 관리팀장'), 목동병원 관리팀장(이하 '목동 관리팀장')이 입장하다.

- 위원장이 부속병원 회계 결산(안)을 설명을 요청하여, 양 병원의 관리팀장이 각각 '18학년도 목동 및 서울병원 결산(안)을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부채항목의 의료발전준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질의하다.

- 목동 관리팀장이 의료발전준비금은 이대서울병원 토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회계 처리된 부분이며 관련근거에 따라 의료발전준비금이 상계되는 시점은 토지 매각 시 상계됨을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당초 병원 회계에서 법적으로 부채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목동 관리팀장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학교나 비영리 법인에서 쓰는 계정인데, 이는 5년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세금문제가 있다고 답하다. 따라서 과세이연을 위해 의료발전준비금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썼던 금액을 의료발전준비금으로 쓰면서 회계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답하다.

- 관리처장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청산이 가능한 부채인지 질의하다.

- 목동 관리팀장이 의료발전준비금이 건물이라면 감가 상각하는 만큼 환입을 해서 없앨 수 있는데, 토지의 경우엔 감가상각이 없어서 토지를 매각하는 시점에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답하다. 법인세법에 명시된 대로 회계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이다.

- 관리처장이 부속병원회계를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합 재무제표가 있어야 양 병원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 회의 때에는 의료원 전체 총괄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목동 관리팀장이 알겠다고 답하다.

- 총무처장이 의료원 적자액에 대해 질의하다.

- 목동 관리팀장이 적자액은 누적액 개념이고, 목동병원 자체의 이익 잉여금은 흑자였으나 동대문 병원의 적자액이 편입되어 누적되며 점차 이익잉

여금의 적자가 늘어났다고 답하다.

- 총무처장이 은행 차입금과 이자비용 관련 이자율을 질의하다.

- 목동 관리팀장이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다. 평균 3.1%정도라고 말하며 변동금리로 금리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다. 이어 2018년 하반기에 가장 많은 돈을 차입했기 때문에 2019년이 되면 이자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다.

- 외부위원이 현금성 예금이 인건비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 서울 관리팀장이 올 한해는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여금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하다. 병상수도 당초 예산대비 작게 시작했으나 3개월 차에 접어들며 빠르게 정상화 되는 상황이어서 초기엔 어렵지만 내년쯤엔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이다.

- 외부위원이 서울병원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유동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하다.

- 서울 관리팀장이 퇴직급여충당금은 비유동부채인데 서울병원으로 이관하는 상계처리를 위해 유동자산 계정을 사용했다고 답하다.

- 외부위원이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처리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서울 관리팀장이 확인해보겠다고 답하다.

- 관리처장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학교의 기금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적립하면 지출부에 잡히고 인출하면 수입부에 잡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다.

- 외부위원이 직관적으로는 맞으나 세법상 준비금 자체는 부채성격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하다.

- 서울 관리팀장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확인한 바 부채계정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 회계처리를 부채로 한 것이라고 답하다.

- 외부위원이 구체적인 이유는 비영리 법인전문가에게 확인해서 답하겠다고 하다.

- 목동 관리팀장이 전입액의 경우 법인세법상 감면받기 위해 임의설정하는 금액인데, 임의설정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과 후를 표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항목은 학교의 기금과는 성격이 달라 동일하게 접근하긴 어렵다고 답하다.

- 외부위원이 서울병원과 목동병원 회계가 분리되어있는데 목동병원회계에 서울병원 차입금 이자 증가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목동 관리팀장이 건물 승인 받기 전 건설 중 자산으로 잡고 그 이후부터 이자비용으로 산정하는데 기간상의 차이라고 설명하다.

- 외부위원이 수익상황이 추경대비 결산이 악화되었음을 지적하며, 3월과 4월 현재 병원 수익 실적을 질의하다.

-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서울병원을 2월에 개원하였는데, 처음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비해 축소 오픈을 하였다고 말한다. 현재 점점 예산대비 의료수익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일일수입, 응급실환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상향해서 잡은 예산은 4월 이후에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다. 양 병원이 가까운 것으로 인한 자기잠식보다는 시너지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인다.

- 학생처장이 상급병원 지정조건에 대해 질의하다.

-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이 3년 이상 지나야 지정대상이 된다고 답하며, 현재 의료원 목표는 목동병원을 다음 평가연도인 2020년에 상급병원 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하다. 서울병원은 2020년에 3년이 되지 않아 그 다음 평가 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상급병원 지정의 수익구조 변동 효과에 대해 질의하다.

-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수가가 5% 오르고 파생 금액 까지 해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답하다.

- 관리처장이 교원인건비의 경우 각 병원에 소속이 정해져 회계처리 하는 것인지 물으며, 자산분리에 있어 양 병원 사이에 회계처리의 어려움이 없었는지 질의하다.

- 목동 관리팀장이 그렇다고 답하며 성격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분리의 어려움은 없었으나, 의료원 체제의 공통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양쪽 협의 하에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18학년도 부속병원 회계 결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학생처장, 대학원 학생회장, 외부위원 총 8인이 찬성하여 '18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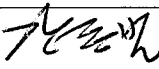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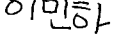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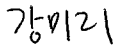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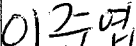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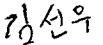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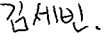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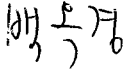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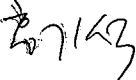

- 2018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 폐회

- 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9년 4월 25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강동범		위 원	이민하	
위 원	강미리		위 원	이상은		
위 원	김다연		위 원	이준엽		
위 원	김선우		위 원	최혜련		
위 원	김세빈		위 원	한은서		
위 원	백옥경		위 원	홍기석		
위 원	유세경					

작성 자

예산팀 안 예 지 